



서울의료원 플러스+

▶ 01 SMC 지금 ▶ 02 SMC 소식 ▶ 03 동부, 북부 소식 ▶ 04 계시판

2014년 3월 / vol. 15

SEOUL MEDICAL CENTER SMC NEWS

서울의료원 후원회 다사랑회 출범



서울의료원 후원회 다사랑회는(회장 성상현)는 지난 2월 20일(목) 4층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다사랑회는 2004년부터 10여년간 서울의료원 직원들의 자발적 모임체로 운영됐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지원 활동을 해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의료지원 사업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3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장 직무대리, 서울시립대학교 이진 총장, 서울시 보건정책관 김창보 국장, 서울의료원 김민기 의료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출범식 행사 당일, 중·고등학교 신입생 40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교복구매 지원금과 서울시립대학교 신입생 5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의료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도 1인당 40만원씩 총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다사랑회는 사단법인으로 전환 이후 ▲공공의료교육연구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및 현물지원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국내외

의료봉사활동 및 구호 지원 ▲각종 문화행사와 자선활동 등으로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다사랑회는 지난해 12월 26일(목)을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회원 60여명이 참여하여 병원과 약국이 없어 큰 불편을 겪는 강북구 오얏마을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중랑구 새우개마을 등 300여 가구에 연탄 6000장, 쌀 110포, 구급함 110세트 등 첫 희망을 전했다.

또한 지난 1월 22일(수)과 27일(월) 양일간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원하고, 가락시장 영세 유통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상비약품을 전달했다.

다사랑회 성상현 회장은 “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록 더욱 큰일을 할 수 있다”며 “서울의료원만의 모임이 아닌 서울시민이 다 같이 사랑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를 마친 후 서울의료원 김민기 의료원장은 “앞으로도 다사랑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도 나눔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다사랑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4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1위 서울의료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최하는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결과, 서울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1위에 선정됐다.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2004년부터 올해로 11회째로 미국 경제전문 잡지인 포춘(FORTUNE)의 조사모형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가미해 개발한 조사방법론에 따라 경영능력, 재무건전성, 윤리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간부진 5520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230명, 일반소비자 4560명 등 총 1만3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올해 14개 산업군(서비스부문 3개, 공공부문 11개)을 신규 조사했으며, 서울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세부 요소 평가에서 재무 건전성과 경영자산 활용도, 민율만한 기업을 제외한 모든 요소 평가에서 다른 의료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1위에 선정되었다. 서울의료원은 최초로 ‘2014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됨으로써 높은 의료수준과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민기 원장은 “신축이전 이후 전직원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최초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겸허한 자세로 서울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최고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요양기관 의료안전망을 위한 업무 협약식



서울의료원은 지역사회요양기관 의료안전망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지난 2월 19일(수) 오후 3시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노령화 사회에 따른 지역사회요양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모든 시민의 돌봄서비스 필요 확대에 따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은 김민기 원장을 비롯해 서울시내 지역사회요양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협약한 지역사회요양기관은 중랑구, 노원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에 위치한 총 21개 기관이다.

서울의료원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1월 15일(수)에 지역사회요양기관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서울의료원은 ▲의료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촉탁의 지원 및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응급센터 내원 시 신속한 협력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협력 ▲건강강좌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협력 등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잔반제로데이 행사 실시



영양팀은 불필요한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수)을 ‘잔반제로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해 12월부터 약 40여일간 ‘잔반 줄이기’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낭비를 줄이는 습관을 갖자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행사는 잔반 없이 구내식당을 이용한 이용객에 한해 요거트를 후식으로 제공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영양팀은 잔반줄이기 캠페인 실시기간 동안 잔반량이 약 40% 이상 감소하였다고 하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식개선이 잔반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BS 다큐프라임 가족, 외과 조동희 과장 출연

홍보팀은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 ‘뽀뚜’씨 이야기를 다룬 ‘EBS 다큐프라임-가족’ 프로그램의 병원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촬영은 마석 가구공단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뽀뚜’씨가 서울의료원의 입원생활 중 갑상선암 검사와 주치의인 외과 조동희 과장의 진료장면을 담았다. EBS 다큐프라임-가족은 ‘왜 가족이 중요한가’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학문적 접근을 통해 풀어보고자 기획된 9부작 교육다큐멘터리이며 이번 촬영분은 오는 10월 방송예정이다.

외과 조동희 과장은 “많은 분들이 서울의료원이 서울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서울의료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이다”고 전했다.



전 서울대병원 진단방사선과 장기현 과장, 3월부터 진료

서울의료원은 진단방사선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장기현 교수를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초빙하여 3월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인 장기현 과장의 세부전공은 신경영상의학이다. 2002년 전국외과대학 방사선학교실 주임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당시 장기현 교수는 진단방사선과학은 현대 의학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학문분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공을 세운 바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의대 영상의학교실 주임교수와 서울대병원 진단방사선과 과장을 역임했다. 2004년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회장을 지냈다. 또한 저서로는 신경영상의학(2011년, 일조각), 신경방사선과학(2000년, 일조각)이 있다.

공지사항

환자안심병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일시: 2014. 3. 4(화) 13:30~17:00
- 장소: 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
- 대상: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환자안심병원 지원단, 서울의료원 임직원
- 내용: 환자안심병원 운영 경과보고 및 비용편익 분석, 사례발표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 실시
포괄간호서비스 정책 방향
환자안심병동 및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병동 투어

2014년 임직원 흡연계도 순찰 실시



금연병원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흡연계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시어 병원시설내 흡연계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3. 3(월) ~ 4. 30(수) 오전 08:30~09:00 / 오후 13:00~13:30
- 대상: 전직원
- 내용: 담당구역에서 흡연하는 분들에 대한 흡연계도 / 병원주변 환경정리

※ 자세한 일정은 그룹웨어 공지사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동부병원

어린이집, 협력의료기관 협약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경일)은 어린이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지난 2월 19일(수) 한일어린이집과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어린이집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관리법에서 규정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의의가 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손상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협조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관리 및 교차감염으로 인한 집단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손씻기에 대한 동영상 교육 및 체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통해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2014 충전소풍



제1회 충전소풍을 다녀와서

글. 총무팀 허은지



소치 동계올림픽의 개막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했던 2014년 2월 7일, 저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경복궁으로 충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매주 반복되었던 평범한 금요일에 신내동 서울의료원이 아닌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향하는 발걸음은 낯설었지만 일탈에 대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Am 10:00, 삼삼오오 약속장소로 모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공사를 마친 DDP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북부병원

우리동네 착한병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東亞日報

초진환자 30분 꼼꼼진료... '3시간대기 3분진료' 관행에 메스

우리동네 착한 병원 <1> 서울시립북부병원

30대 불만 초진 환자를 전한 의료인은 서울의 사업배려, 어린이 환자 보호를 위해 소아과 병동의 침대를 열었고 응급실을 마련한 경기 김포시의 중소병원, 노년 환자를 위해 무릎·자궁 부목 등 수산재까지 무릅을 꿇어줄거라 자처한 부산 ‘부위’와 ‘말’을 살리는 데에 몰입한 울산의 요양병원을 꼽았다. 또 장애인에게 ‘우리 둘은 사랑’이라는 기적 시로지를 사들인다는, 실험 병원이라고 불리는 노인요양사, 환자들을 위한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실현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이 기록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얻으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병·의원들을 찾아내 소개하고,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illegible]

나선 발원지이다. 차에 5분정도 '30분 강자 30분 강진, 재진 10분' 강진인지를 밝히고 있는 사계시립박물관이다.

● **용문산 일출, 차세론 편찬**—30분 이후 출력

이제 오전 10시 45분 사계시립박물관 1층 부속 용문산 진전실. 한가히 진전실이 되어가고 있다. 차를 세우고 박물관 2층 곳까지 올라가서

을 품까지 채워버려 일본은 아예아니. 이 책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8월 19일이 될 때 한강을 건너고 싶어서 못하다가 쓰러져 쯤 한참 한 거예요." "차세론 12권 내사귀 전집을 보는데 역사적인 식도언어 신화까지 다 익을 먹었다" 두 분의 진전실 견학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말들이 이어진다.

다. 그러자 최근 손발이 자주 무어 켈리니를 찾
는 환자 이모 씨씨는 "잠을 잘 못 잔 지 서너
달 됐어요. 눈이랑 손발이 쑤는 줄로~"라며 증상
을 전했어요. 눈이랑 손발이 시작했다.

“연세부터 그런 층에 있었나요? 이렇게 고
열입니 달도 달도 없었나요?” 정 과정은 이
쪽의 증상을 들으며 타자를 치른 손을 멈추고
환자의 눈을 바라봤다. 이 씨는 “고열입니

● **박찬욱** **전통** vs **현대** **가치** 모두 **대단**
전통과 현대 이 제는 “공존할 걸 해줄 수 있는
데는 가장 좋았다.”며 “이제는 ‘이런 걸 물어
보지 마’ 하는 건가? 자꾸는 재미없잖아?” 이런
대화를 했었다. 지금 더 재미난다”고 했다.



작년 5월부터 '30분진로 캠페인'을 시작한 서울특별시북부본부 부윤을대리은 조순남 부윤이 화자와 초친한 사이라고 한다. 이 화자의 진로일은 30분 진로 캠페인이다. 화자인 기자 yjw72@donga.com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사로서는 같은 시에 같은 환자들을 함께 보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놓치는 환자들을' 게 더 부끄럽다"고 말하며 "진로 캠페인은 '진로 캠페인'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후 4개가 열리고 끝나는 병원 10명 안밖. 올봄 30분 진로 내외다.

“진로 캠페인은 '진로 캠페인'을 말한다”

당뇨·치매 등 12개 클리닉 확대 운영
4개분야서 하루 10명 안팎 진료

아남 30분 진료료 받은 다른 환자 김모 씨(39)도 "예전에는 중상반 예가고 약 처방을 받으

[illegible]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이 동아일보 지면개편과 함께 시작한 '우리동네 착한병원'코너에 첫 스타트를 끊었다. 2월 17일자 지면을 통해 우리병원의 전문클리닉을 집중 조명했다.

동아일보는 ‘우리동네 착한병원’ 선정을 위해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착한 병원 선정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진지한 논의 끝에 착한병원의 선정기준을 세웠다. 착한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편의와 더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이벤트성 마케팅 목적의 시스템이 아닌 6개월 이상 환자중심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북부병원 전문클리닉은 “초진 30분, 재진 10분” 진료로 의사는 환자의 증세와 병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3시간대기 3분 진료”가 의료계의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환자 중심 의료를 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북부병원은 하루 4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화의학, 삼킴장애, 부종, 당뇨병, 고지혈증, 치매, 알코올, 성인예방접종, 건강상담, 스트레스·우울증, 어깨통증, 뇌졸중 클리닉 등 12개의 전문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착한병원 선정위원회’ 김영애 위원(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우리병원의 전문클리닉 운영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시립병원을 저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30분 진료가 공공병원의 신료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축물로 마치 우주선을 보는 듯한, 외국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두 핸드폰 혹은 사진기를 치켜들었고, 건축물들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가이드를 통해 미리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에 대해 들어볼 수 있어 더 의미 있었습니다. DDP뿐만 아니라 야외에 마련된 동대문역사관과 동대문운동장역사관까지 많은 볼거리로 오전 소풍이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오전일정을 마쳤습니다.

따끈한 설렁탕으로 몸을 녹이고 다시 경복궁으로 이동. 경복궁 입장 전, 간단한 티타임을 갖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전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모두 조금은 가까워진 분위기에서 유쾌하게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리고 어색했던 동료들과 선생님들을 알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경복궁은 누구나 어릴 적 한번쯤 다녀왔을 장소였지만 저희는 현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와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방문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운 좋게 정말 열정적인 가이드 선생님(자원봉사자: 이대희 님)을 만나 역사이야기를 들으며 투어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소풍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도 설레임을 안겨주었던 이번 충전소풍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들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의료원 식구들에게도 더 없이 좋은 기회로, 타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원하는 서울의료원만의 훌륭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신규직원

외과 이슬 과장 | 전문진료분야 : 상부위장관, 복강경수술



안녕하세요! 2월부터 서울의료원 외과에서 근무를 하게 된 이슬입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 공공의료의 허브 병원, 서울의료원의 새 식구가 되어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된 마음입니다.

저는 병든 부분을 떼어내고, 복원하여 환자의 빠른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외과의 여러 영역에서도 상부위장관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진 및 예방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고, 위암의 사망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위암 발생율은 남자 1위, 여자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위”라는 분야는 “치료”뿐만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꾀하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강경 시대의 외과의사로서 최소침습수술을 통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나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양성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점차 해당 환자가 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합병증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용이 많아 여러 진료과 간의 협력 하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직 지식이나 기술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많은 공부와 노력, 그리고 젊음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러한 분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항상 공부하고 더 나은 치료를 위하여 연구하며, 좀 더 낮은 곳에서 환자를 섬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신장실 윤미리 간호사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월에 인공신장실 간호사로 들어오게 된 신규간호사 윤미리입니다^^

처음 서울의료원에 출근 할 때는 기쁘고 뿌듯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부담감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떨렸었습니다. 저는 서울의료원에 들어오기 전에도 인공신장실에서 일했었는데 규모가 서울의료원보다 작아서 인지 그곳에서는 환자의 케이스가 다양하지 않았었는데 서울의료원에 와보니 같은 투석환자만 참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이 있어서 간호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출근하는 매일매일 긴장과 설렘의 연속입니다.

처음에 서울의료원에 오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배치되는 부서의 분위기가 어떨지 내가 가게 되는 병원의 시설은 어떨지 궁금했었는데 최첨단 의료장비에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 원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놀랐습니다.

다행히 제가 배치된 부서인 인공신장실은 가족 같은 분위기이며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께서도 열정적으로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는 분위기로 신규간호사의 입장에서선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부서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처음 이곳 서울의료원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매사에 저의 장점인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 할 줄 아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매일 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인공신장실 환자들을 생각하며 언제나 웃는 얼굴로 따뜻한 병원의 이미지를 심어드리고 싶고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마인드 그리고 기술을 더 알고 개발하는 간호사가 되어 환자들에게 믿음직한 간호사 믿음직한 병원이라는 생각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 입니다. 서울의료원 여러분 모두모두 파이팅하세요~^^!



서울시 소식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거치대 휴지통 ‘디자인 시민공모전’

도시미관 개선·재활용률 향상·환경미화원 작업편의 증진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전용봉투 및 거치대 휴지통 디자인 개선과 관련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민참여형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응모자격: 제한없음
- 공모대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재활용품 전용봉투 포함) 및 거치대 휴지통 디자인
- 공모부문: ①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전용봉투 포함 부문
②거치대 휴지통 부문
- 접수기간: 2014. 04. 01(화) ~ 04. 04(금) 17:00
- 접수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사무실
- 수상작 발표: 2014.04.30(수) (예정)
- 서울시 와우서울 공모전 홈페이지(<http://wow.seoul.go.kr/>)



언론 속 서울의료원

데일리헬스(2.4): 서울의료원 다사랑회, 설 명절 ‘사랑의 나눔 행사’ 개최

보 건 뉴 스(2.4): 서울의료원 다사랑회, ‘사랑의 나눔행사’ 개최

현대건강신문(2.4): 서울의료원, 설 맞아 ‘사랑 나눔행사’ 가저

매일경제(2.18): KMAC 선정 ‘2014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지역거점 공공병원 1위 서울의료원)

국민일보(2.21): 서울의료원 후원회 ‘다사랑회’ 출범식 개최

의약뉴스(2.21): 서울의료원 후원회 ‘사단법인 다사랑회’ 출범

게시판

교육 연수

박태환: 2014. 2월 10일 ~ 2월 14일
international stroke conference 참석 및 구연 발표 / 미국

임 사

02-01	이 슬	외 과	02-10	김계동	병동간호팀
02-03	김수진	특수간호팀	02-10	김재훈	외래간호팀
02-03	박예리	간호부	02-11	전은숙	건강증진센터
02-03	박서광	간호부	02-11	김인숙	건강증진센터
02-03	김아름	간호부	02-11	이원자	건강증진센터
02-03	정은지	간호부	02-11	윤여미	건강증진센터
02-03	황다정	간호부	02-11	정다운	건강증진센터
02-03	윤루비	건강증진센터	02-11	장우태	건강증진센터
02-03	정상주	건강증진센터	02-11	최은혜	건강증진센터
02-06	이순이	식 당	02-11	김춘희	건강증진센터

퇴 사

01-31	김형준	병동간호팀	02-03	손진실	병동간호팀
01-31	이재호	의료정보팀	02-06	이향정	식 당
01-31	정선자	병동간호팀	02-10	이채은	특수간호팀
01-31	김진호	공공의료팀	02-11	서지원	병동간호팀
01-31	강호진	식 당	02-12	이금성	식 당
01-31	김은경	식 당	02-15	신유리	병동간호팀